

사회 문화적 변수들과 흡연, 음주, 대마초 사용 행동과의 관계

김 영 란
(단국대학교 강사, Ph. D.)

목 차

I. 서 론	V.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에 위한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 과	
IV. 결론 및 고찰	

I. 서 론

심장질환·암·뇌혈관계질환 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병과 습관성 행동(예, 흡연, 음주, 약물 사용)과의 상관 관계 규명은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공중 보건의 관심 분야로 규정되어 왔다. 흡연은 미국내 연간 사망율의 15%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음주는 9번째 주요 사망 원인인 간경화로 인한 사망의 평균 90~95%에 기여하고 모든 배우자 학대의 50%, 과실치사의 68%, 강간의 52%, 폭행의 62%, 어린이 학대로 인한 사망의 38%와 연관이 있다.²⁾ 모든 사고사, 자살, 그리고 살인의 반은 음주와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³⁾ 대마초와 같은 습관성 약물사용도 신체적 기능, 정신 건강과 사회적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⁴⁾

멕시코계 미국인은 9백만의 인구를 가진 두번째로 큰 소수 민족인데,⁵⁾ 이들은 일반 백인(Anglo)들과 비교해서(성별과 연령등을 통제했음) 연간 적어도 1,316명의 초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⁶⁾ 백인들과 유사하게 심장질환계, 암, 간질환, 그리고 사고가 멕시코계 사이에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질병과 사망은 일반 미국인들과 같이 흡연, 음주, 그리고 약물 사용과 같은 행동적인 위험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멕시코계 사이에 이들 습

관성 행동들의 만연은 백인들의 그것과 점점 비슷해지거나 혹은 더 심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10)

이들 중독성 위험 행동들은 사회화 과정등을 통해 습득된 반응이고 행동 모형(behavior pattern)이다. 사회 문화적 구조안에서 규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사회화나 사회 규범으로 전달되어서는 개인의 일상 행동에 영향을 준다. 교육,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와 문화동화(acculturation)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행동 모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들 변수 중에 성은 위험 행동의 가장 강력한 예견자로 보인다. 비록 여전히 멕시코계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동질적인 멕시코 문화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점점 사회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이질화 되어가고 있다.¹¹⁾ 문화동화는 “사회 주류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관, 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정의되어질 수 있다. 문화동화(i.e., 백인들의 행동, 태도, 가치 등의 미국의 주체 문화를 수용)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을 온 멕시코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각 중독성 위험 행동들은 사회인구학적·경제적 지위와 주류인 Anglo 사회에 대한 문화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가정한다.

이들 속에서 습관성 행동의 만연에 있어서 성별의 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12)~15)}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습관성 행동의 발생률에도 관계가 있다. San Antonio Heart Study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흡연가의 비율이 남성(33.4% 대 49.4%)과 여성(16.1% 대 25.2%) 모두에게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¹⁶⁾ 금연가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높아짐을 보였다. 또한 흡연의 위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했다.¹⁷⁾ 음주와 사회경제적인 지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있지만,¹⁸⁾ 교육 수준을 변수로해서는 여성들에게서는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¹⁹⁾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적은 사람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셨다. 소득과 남성의 음주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는데 여성의 음주 습관과는 긍정적 관련을 보인 연구도 있다.²⁰⁾ 소득 수준이 높은 멕시코계 여성이 적은 양의 술이지만 자주 마신다는 것을 보고했다. LA의 빈민 지역(barrio)에 거주하는 청소년 멕시코계들의 대마초 사용 만연율은 41.5%에 이르는데 이것은 일반 같은 또래 집단의 22.4%에 두 배 가까이 되었다.^{21), 22)} 멕시코계 성인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마초 사용의 만연도를 조사한 연구가 별로 없지만, 일반 성인들 사이에 대마초가 여가적 목적이나 자극을 위해서 사용되기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마초 사용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³⁾ 나이와 흡연 행동에 있어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서 낮아지는 곡선적인(Curvelinear) 관계를 보고했다.²⁴⁾ 하지만 나이와 흡연 상태간에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했다.²⁵⁾ 나이와 음주 그리고 약물 사용간에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했다.²¹⁾ 반면에 성인들에게서는 음주와 나이간에 부정적인 관련을 보고했다.²⁶⁾ 문화동화와 남성들의 흡연율은 부정적이었지만 여성들에게서는 긍정적이라는 보고²⁷⁾가 있는 반면에, 전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²⁵⁾ 문화 동화와 음주와 약물 사용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²⁸⁾ 또한 중독성 행동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음주와 담배량과 흡연율과 관련이 있고^{29)~31)} 히스패닉 청소년들 사이에 음주와 대마초 사용 간에 강한 연관이 있음이 또한 보고되었다.³²⁾ 한 연구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단계가 처음에는 술을 사용하고 담배, 대마초 그리고 다른 약물로 옮겨 간다고

했다.³³⁾ 즉 서로 이러한 행동들이 서로 관련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습관성 행동의 빈도와 성, 나이, 교육, 소득, 문화동화 그리고 습관성 행동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위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습관성 행동별로 개입이 긴박하게 필요한 위험이 높은 집단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견들은 어떤 하위 집단이 목표이고 무슨 요소들이 정책 실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지를 포함해서 이들 습관성 행동의 만연율을 낮추기 위해 계획되는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1982년 7월 부터 1984년 12월 까지 국가 보건통계조사국에 의해서 행해진 "Hispanic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HHANES)의 자료를 사용했다.³⁴⁾ 멕시코계 미국인의 84%가 사는 지역들인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뉴 멕시코, 콜로라도, 텍사스에서 수입에 따르는 경제별, 나이별, 성별에 따라 다원적인 계층화(stratified), 군생화(cluster) 과정을 통해서 건본이 추출되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6개월 부터 74세에 이르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 부터 74세까지의 성인 응답자 중 문화동화 측정을 받은 사람들만을 사용했다. 전체 3,545명 대상자 중 1,567명의 남자와 1,978명의 여자로 구성되었다.

2. 조사방법

교육은 개인이 정식으로 교육받은 연도수를 말하며 0(무학 혹은 유치원) 부터 17(대학원) 등급으로 되어있다. 수입은 지난해 동안 총합계한 가족 수입(임금, 월급, 다른 종류의 수입)을 가족수로 나누어서 계산된 개인당 수입을 사용했는데 83달러에서 50,000달러의 범위에 이른다. 나이는 20에서 74에 이르는 범위를 갖고 있다. 문화동화는 단일 차원의 멕시코계들을 위한 문화동화등급³⁵⁾의 축소화된 version을 사용해서 측정되었다. 문화

동화 점수는 언어 선호도(5등급 Likert scale), 종족 증명(5등급 Likert scale), 세대 문항(3등급 Likert scale)에 관한 8항목에 입각한 종합 점수의 평균값으로 구해졌다. 문화동화 점수는 10점에서 부터 49점에 이른다.

흡연 행동은 담배 사용을 지표로 해서 구했다. 담배 사용은 금연가(Non-smoker), 흡연중지자(Former Smoker), 그리고 흡연자(Current Smoker)로 나뉘어졌다. 이 변수는 “당신은 당신 생애에서 담배 100가치 이상을 피웠습니까?”와 “당신은 현재 담배를 피우니까?”의 항목을 통해서 규명되었다. 음주는 금주가(abstainer), 간헐적인 음주가(occasional), 소 음주가(light), 보통 음주가(moderate)와 대 음주가(heavy)로 나뉘어졌다. 이 스케일은 4주 동안의 참고 기간과 이 참고 기간 전년도 동안 각각의 다른 종류의 술의 소비량과 빈도를 묻는 수십개 항목에 의해서 구해졌다. 전혀 술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금주가에 속하고 응답자 중에 1년 안에 술을 마셨지만 참고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간헐 음주가로 구별되었다. 나머지 세 범주는 28일 동안에 마신 맥주, 포도주, 그리고 양조의 량과 빈도에 관한 응답을 매일의 절대적인 평균 음주 소비량으로 환원해서 구별되어졌다. 소 음주가는 0.01~0.21 ounces(.3~6g)의 ethanol을 마시고; 보통 음주가는 .22~.99 ounces(6~28g)의 ethanol을; 대 음주가는 1.0 ounces(28.35g)나 그 이상을 매일 마신 사람을 말한다. 대마초 사용은 여태껏 전생애를 통하여 대마초를 사용한 빈도에 의해 비사용가로 부터 대 사용가에 이르는 5등급으로 구분했다. 비사용가는 대마초를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 실험 집단은 대마초를 한번 혹은 두번 사용한 사람; 소 사용가는 3~10번 까지 사용한 사람; 보통 사용가는 11번에서 99번 까지 사용한 사람; 대 사용가는 100번 이상 사용한 사람이다.

3. 분석 방법

HHANES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기에 적절한 분석을 위해 표본 가중치(sample weight)를 계산했다. 표본 가중치는 개인의 추출 확률, 무응답의 조정과 이에 따른 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해서 나왔다. 즉 이것은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이 각각의 인구집단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대상자의 표본 가중치를 나이와 성별에 따른 평균 표본 가중치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평균 가중치를 구했다. 이것은 변량 추측(variance estimation)이나 유의도 검증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과정의 표본 추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즉 평균 표본 가중치의 응용은 분석을 위해 단순한 무작위 표본 추출로 가정하게 하였다.

각각의 변수와 각 중독성 행동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을 통해서 연구되었다. 각 중독성 행동에 따른 독립변수의 차이는 Scheffe's t-test를 통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았다. 중독성 행동들 간의 연관은 상관계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의 기준은 α 수준 0.05에서 행해졌다.

III. 결 과

표 1은 대상자들의 연구 변수에 관한 기술 통계치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나이는 37세이고, 교육 연도 수와 소득 수준은 여성과 남성 모두 비슷하게 적어도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고 저소득층임을 보여 주고 있다. 문화동화는 10에서 49에 이르는 점수에서 25점 정도이다.

1. 흡연 행동

남성: 표 2는 42%의 남성들이 현재 흡연을 하고, 68

표 1. Means &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Variables for Males and Females

변 수	남 성			여 성		
	N	Mean	s. d	N	Mean	s. d
문화동화	1,436	25.46	10.01	1,823	25.55	7.57
교육	1,544	9.76	4.18	1,947	9.25	2.98
소득	1,439	5,935.39	5,381.99	1,798	4,994.38	2,978.74
연령	1,567	37.10	13.56	1,978	37.32	9.90

표 2. Proportion of Males and Females by Smoking Status

범 주	남 성		여 성	
	N	Percentage	N	Percentage
금연가	507	32.4%	629	61.6%
흡연 중지자	397	25.4%	136	13.3%
흡연가	662	42.3%	256	25.1%

표 3. ANOVA Test for Males and Females by Smoking Status

변 수	남 성				여 성			
	N	df	F value	P	N	df	F value	P
문화동화	1,435	2	7.97	.0004	1,823	2	9.78	.000
교육	1,543	2	22.06	.0001	1,946	2	.96	.385
소득	1,438	2	5.31	.0050	1,978	2	3.06	.047
연령	1,567	2	34.05	.0001	1,977	2	4.00	.019

표 4. Mean of Variables for Significant Scheffe's Test by Smoking Status

변 수	남 성				여 성			
	1	2	3	비교집단	1	2	3	비교집단
문화동화	26.29	24.07	23.99	1 : 2 1 : 3	23.83	25.14	26.40	1 : 3
교육	10.43	8.92	8.85	1 : 2 1 : 3	N. S.			
소득	6,284.09	6,096.93	5,294.19	1 : 3	N. S.			
연령	36.20	43.85	40.38	1 : 2, 3 2 : 3	39.36	42.01	39.47	1 : 2

1=금연가, 2=흡연 중지자, 3=흡연가. N. S.= No Significant

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표 3은 남성들의 흡연 행위 상태에 따라 문화동화, 교육, 나이와 소득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여준다. 표 4의 Scheffe's 검증은 금연가는 문화동화 정도가 흡연가나 흡연중지자에 비해 가장 높고 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금연가에 비해 유의미하게 문화동화의 정도가 낮은 흡연가와 흡연중지자 사이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금연가들이 흡연중지자와 흡연가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금연가들은 흡연가에 비해 평균 소득이 높았다. 그러나 흡연중지자와는 차이가 없었다. 금연가들의 평균 연령은 흡연가나 흡연중지자들에 비해 상당히 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흡연 중지자들은 흡연가들에 비해 의미있게 나이가 많았다.

여성: 표 2를 보면 남성의 흡연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62%)이 금연가이다. 25%의 여성들이

흡연을 하고 13%가 흡연중지자임을 보이고 있다. 표 3은 문화동화와 소득과 연령의 평균이 흡연 행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준은 흡연 행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4는 남자와는 달리 여성 흡연가들의 문화동화 평균 점수가 금연가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비록 소득 수준이 분산분석에서는 흡연 행위에 따라 다르게 나왔지만, Scheffe's 검증에서는 흡연 상태에 따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흡연중지자들이 비흡연가에 비해 나이가 많음을 보였다. 반면에 금연가와 흡연가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2. 음주 행동

남성: 표 5는 거의 84%의 남성이 현재 술을 마시는 사람임을 보이고 있다. 19%가 술을 자주 많은 양을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음주 행위별로 문화동화,

표 5. Proportion of Males and Females by Alcohol Use Behavior

범 주	남 성		여 성	
	N	Percentage	N	Percentage
금주가	210	15.8%	615	63.9%
간헐 음주가	123	8.5%	30	3.2%
소 음주가	354	26.5%	235	24.4%
보통 음주가	386	30.6%	69	7.1%
대 음주가	237	18.5%	12	1.3%

표 6. ANOVA Test for Males and Females by Alcohol Use Behavior

변 수	남 성				여 성			
	N	df	F value	P	N	df	F value	P
문화동화	1,309	4	4.54	.001	1,720	4	43.40	.000
교육	1,411	4	16.41	.000	1,841	4	53.60	.000
소득	1,315	4	5.43	.000	1,696	4	30.64	.000
연령	1,432	4	16.36	.000	1,868	4	12.56	.000

표 7. Mean of Variables for Significant Scheffe's Test by Alcohol Behavior

범 주	남 성				여 성			
	문화동화	교육	소득	연령	문화동화	교육	소득	연령
1	22.42	7.95	5,053.27	40.83	22.30	7.78	4,117.77	41.58
2	24.33	7.61	4,506.16	48.70	26.02	8.50	5,148.78	42.39
3	24.66	10.05	6,271.10	40.20	28.56	10.66	6,057.04	36.74
4	25.45	9.88	5,873.75	37.87	31.05	11.27	7,242.50	36.22
5	26.09	9.59	6,733.19	38.99	31.29	10.13	5,214.39	35.70
비교	1 : 5	1 : 3,4 & 5	5 : 1 & 2	2 : 1,3,4 & 5	1 : 3,4 & 5	1 : 4	1 : 3 & 4	1 : 3,4,5
집단	1 : 4	2 : 3,4 & 5	2 : 3			2 : 3 & 4	2 : 4	2 : 3,4,5

1=금주가, 2=간헐적 음주가, 3=소 음주가, 4=보통 음주가 5=대 음주가

교육, 소득과 나이가 유의미하게 다름을 보여 준다. 표 7은 보통 음주자와 폭주자들은 금주자에 비해 문화동화 점수가 유의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폭주자는 금주자와 간헐적인 음주자에 비해 평균 소득이 아주 높고, 소 음주자는 간헐적인 음주자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금연가와 간헐적인 음주자들은 다른 음주 집단에 비해서 평균 교육 연수가 상당히 낮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음주를 현재 하는 집단들 사이에는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간헐적인 음주자들은 다른 음주자 집단에 비해서 나이가 상당히 높았다.

여성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의 여성들이 금

주가이다. 음주가 중에서는 대부분이 소 음주자들이다. 폭음을 하는 비율은 아주 낮았다. 표 6에서와 같이 문화동화, 소득, 교육과 나이의 평균이 음주 행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7은 금주자들은 현재 술을 마시는 각 음주 집단들에 비해서 문화동화가 아주 낮았지만 현재 술을 마시는 집단 간에는 문화동화에서 차이가 없었다. 소 음주자들이나 보통 음주자들은 금주자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음주자들은 간헐적인 음주자들에 비해 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 반면에 음주자 집단 사이에는 소득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현재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통 음주자들은 금주거나 간헐적인 음주자에 비해 더 많이 교육을 받았고 소 음주자들은 간헐적인 음주자들에 비해 교육 연수가 많았다. 현재 술을 하는 각 음주 집단은 금주자에 비해서 상당히 젊다. 여성 폭주자들은 간헐적인 음주자에 비해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다.

3. 대마초 행동

남성 : 표 8은 49%의 남성이 적어도 대마초를 피워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4%의 남성들이 100번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 실험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10번 이하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26%나 되었다. 마찬가지로 표 9는 문화동화, 소득, 교육, 연령이 대마초 사용 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의 Scheffe's 검정의 결과는 문화동화가 높을수록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많은 것을 보이고 있다. 대마초를 한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집단들은 비사용자에 비해 문화동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두번 대마초를 사용한 실험집단은 11번 이상 피운 집단들에 비해 문화동화 수준이 낮았다. 3번이상 사용한 집단들 간에는 문화동화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문화동

표 8. Proportion of Males and Females by Marijuana Use Behavior

범 주	남 성		여 성	
	N	Percentage	N	Percentage
비사용자	795	51.4%	790	77.9%
실험적 사용	250	16.2%	91	9.0%
소 사용자	160	10.3%	53	5.2%
보통 사용자	126	8.1%	43	4.2%
대 사용자	216	14.0%	37	3.7%

0번=비 사용자, 1~2번=실험적 사용자, 3~10번=소 사용자, 11~99번=보통 사용자, 100번 이상=대 사용자

표 9. ANOVA Test for Males and Females by Marijuana Use Behavior

변 수	남 성				여 성			
	N	df	F value	P	N	df	F value	P
문화동화	1,417	4	52.09	.000	1,812	4	75.03	.000
교육	1,524	4	46.09	.000	1,934	4	65.97	.000
소득	1,421	4	3.93	.003	1,798	4	6.61	.000
연령	1,546	4	98.17	.000	1,963	4	75.10	.000

표 10. Mean of Variables for Significant Scheffe's Test by Marijuana Use

범 주	남 성				여 성			
	문화동화	교육	소득	연령	문화동화	교육	소득	연령
1	22.91	8.3	5,337.60	45.53	22.80	8.10	4,623.27	42.28
2	25.27	9.7	6,302.96	36.90	31.30	11.60	5,582.58	32.43
3	27.88	10.9	6,259.01	33.50	33.61	12.24	6,367.64	28.34
4	30.43	11.6	6,808.25	30.71	34.90	12.04	5,899.50	26.52
5	31.29	11.6	6,475.40	29.69	36.34	11.93	5,461.94	26.57
비교 집단	1 : others 2 : 4 & 5	1 : others 2 : 4 & 5	N. S.	1 : others	1 : others 1 : others	1 : others 1 : others	1 : 3	1 : others

1=비 사용자, 2=실험적 사용자, 3=소 사용자, 4=보통 사용자, 5=대 사용자

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은 비 사용자 집단이 피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다. 11번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3번 이하로 사용한 사람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았다. 소득 수준은 Scheffe's 검정을 통해서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마초 금연가들은 모든 사용자 집단에 비해 상당히 연령이 많았다. 100번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가장 젊은 나이를 가졌다. 3번 이하로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들은 11번 이상 사용한 집단들에 비해 나이가 많음을 보였다.

여성: 표 8은 단지 4%의 여성이 대마초 경험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22%의 여성이 적어도 한번은 대마초를 피웠다. 표 9와 10은 대마초 경험 범주에 따른 문화동화, 소득, 교육과 나이의 유의미한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다. 대마초 비 사용자들은 각 사용 집단과 비교해서 문화동화 점수가 낮았다. 평균적으로, 한번 정도 대마초를 경험한 여성은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대마초 경험이 없는 사람은 평균 8년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다른 어떤 경험 집단에 비해 상당히 교육 수준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험이 있는 사용자 집단 간에서는 교육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소득에 있어서는 비사용자가 다른 경험자 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나이에 있어서는 대마초를 적어도 3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0 이하였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나이가 들었다.

표 11은 종속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흡연 행위는 음주 행동(.181)과 각각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반면에 흡연과 대마초 사용과는 통계적인 유의 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음주와 대마초 행동 사이에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267)를 보이고 있다. 음주를 더 자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대마초 경험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의 중독성 행위는

서로 상호 긍정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을 보여준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음주와 대마초 사용 행동과는 높은 상관계수 (.382)를 나타냈다. 음주와 흡연 행위가 .290으로 그 다음이고 흡연과 대마초 사용과의 상관계수는 .197이다.

IV. 결론 및 고찰

분석 결과는 남성들의 대다수가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이들의 흡연가 비율(43%)이나 폭주가 비율(20%)은 전국적 면담 조사에^{24),34)} 따른 일반 남성 인구의 그것들과(38%, 13%) 비교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행동에 관해서 연구가 거의 없어 만연도에 관해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본 연구는 50%의 남성과 22%의 여성들이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대마초 사용이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들 중독성 행동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 사이에서 흡연, 음주, 그리고 대마초 사용의 높은 만연율의 증거는 이들이 행동들과 관련된 만성 질환과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위험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가지 중독성 행동들 사이에서 성별 차이가 음주 행동에서 가장 크고 흡연과 대마초 행동 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성별 차가 이 인구 집단에서 왜 큰지를 밝히는 연구는 없지만 문화동화를 통해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전통적 멕시코 규범이나 문화가 성별 차이 밑에 깔려있는 주요한 속박물이 아닌가 한다.

문화동화가 많이 된 남성들은 금연가가 될 것 같은 반면에 문화동화 정도가 높은 여성들은 더 흡연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이 문화동화 수준이 높으면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고 대마초 경험도 더 많이 할 것임을 보여 주었다. 여성들

표 1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ddictive Behaviors

변 수	남 성			여 성		
	1	2	3	1	2	3
흡연						
음주	.181*			.290*		
대마초	.062	.267*		.197*	.382*	

* Coefficients are significant at .05 level.

사이에 흡연, 술 사용과 대마초 사용 행동의 만연도는 문화동화의 수준과 강력하고도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멕시코에서 흡연, 음주, 대마초 사용 행동에서의 성별 차이와³⁶⁾ 이들 각 행동들의 만연도와 문화동화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중독성 행동에서의 독특한 성별 차는 여성의 약물 사용 행동을 거부하는 엄격한 규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일종의 성역할이나 문화 관련 규범일지 모른다. 멕시코 여성들이 백인 문화에 동화되어질수록 그들은 전통적으로 규제된 행동들에 대한 기회와 제한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Anglo 사회의 친구, 이웃 뿐 아니라 대중매체와 사회 기관과의 문화적 접촉을 통해서 멕시코계 지역사회에서 성과 사회적 규범이 변하리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문화동화와 함께 하는 중독성 행동 변화는 백인 사회에서 백인 여성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행동 패턴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동화가 된 사람일수록 흡연, 음주와 대마초 행동이 여성에게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는 전통적 문화 규범에 맞서거나 혹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정도가 비슷한 Anglo 여성들의 규범을 따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지위가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Anglo 여성들이 흡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³⁷⁾

남성들에게서 흡연 여부와 문화동화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남성들이 흡연에 관한 Anglo 사회의 현재 규범이나 경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흡연은 남성적인 행동이나 대다수의 행동으로 믿지 않고 흡연가였던 남성들이 더욱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³⁷⁾

남성과 여성에서 똑같이 대마초와 문화동화간에 강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은 대마초의 사용이 Anglo형의 레크레이션이나 여가를 취하는 방식임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고찰은 멕시코계들이 Anglo 또래로부터 대마초 사용을 권유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920~30년까지 대마초는 멕시코인이나 멕시코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었고 1960년대 중상층의 미국 젊은이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38), 3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젊은 멕시코인들은 대마초 사용이 문제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자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즉 Anglo들의 규범이나 습관을 따

르므로서 “Anglocize(백인화)”에 대한 압력을 더욱 받는 사람들은 대마초를 경험하기가 쉽고 또 대마초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남성 금연가는 흡연가보다 더 높은 소득과 교육 수준을 가진 반면에 여성의 흡연 상태에 따른 평균 소득과 평균 교육 연수의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교육은 흡연 행위에 대한 예측 요소가 아님을 나타냈다. 남성들의 흡연 행위에서 소득과 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저 소득과 저 교육을 받은 남성들이 흡연 행동의 위험성에 관해서 정보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다수가 계속 담배를 피울 것을 암시한다. 남성 흡연가와 흡연중지자 집단은 금연가들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여성 흡연중지자들도 금연가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이것은 나이가 든 멕시코계 사람들이 담배를 끊거나 혹은 담배를 계속적으로 피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득과 교육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음주 행위와 긍정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로부터 사회적 음주(social drinking)가 이들의 중요한 생활 습관 요소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동화가 많이 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술을 마실 기회와 술을 살 기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간헐적인 음주자들은 다른 음주자들이나 금주가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남성 금주가와 다른 음주가들과는 연령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 음주자들은 금주가나 간헐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에 비해 젊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술을 끊으려 하거나 계속 마시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대마초 사용 경험 정도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대마초 비 사용 여성들은 대마초를 3번에서 10번까지 피워본 사람들에 비해 낮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마초 비 사용가와 실험 집단의 평균 교육 연수는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각 집단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즉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더 경험하거나 더 자주할 듯 싶다. 반면 소득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크게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마초 사용이 경제적인 여유에 기인하지 않는 것 같다. 대신 대마초 사용이 재미, 정서 변환이나 스타일을 느끼려는 미국식 여가에서 비롯된 듯 싶다. 나이와 대마초 경험 간에는 강력한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이나

남성 모두 30세 이하의 사람들이 가장 대마초를 많이 자주 경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젊은 세대가 가장 대마초 사용을 빈번히 할 위험 집단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문화동화와 대마초 사용간의 긍정적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쉽게 이 세대의 멕시코인들이 대마초의 사용을 Anglo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진단적 연구의 개념과 방법은 중독성 행동 및 다른 건강과 관련된 행동에 관한 연구가 적은 한국에서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 음주와 흡연 행동의 만연도가 남성들에서 대단히 높고 또한 남녀 집단간에 이들 행동의 만연도의 차이가 아직은 크지만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러한 변화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 대마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별로 이들 행동이 만연되게 하는 신념과 태도나 가치관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환경하에 사용되어지고, 누구와 언제 어디서 이들을 사용하는지를 포함하는 사회적·문화적 혹은 인지적 요소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한국의 연구에서는 문화동화 대신에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 : 서구 문화에 대한 태도, 규범, 가치나 신념, 성 역할 규범 등)”가 중요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부문에서 어떻게 장(field)을 열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V.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멕시코계의 중독성 행동의 발생율을 감소하려는 건강증진 정책가들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 계획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흡연과 음주 예방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남성과 여성에게 분리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마초 예방 프로그램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다를 필요가 없다.

남성의 흡연 예방을 위해 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고 물론 영어 언어 능력이나 미국의 주 문화적 가치관을 아직 수용치 못한 사람들이 우선적인 목표 대상자가 될 것이다. 담배의 효과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이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이 인구

집단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과 그들에게 담배에 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일하는 직장이나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문자화된 서면 정보 보다는 방송이나 대중방송 조직을 통해서 단순한 구두 메시지가 적절할 것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일 때 서면 메시지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보는 radio나 TV의 가장 유행하는 오락 프로그램 시간에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구두 메시지는 Spanish가 되어야 할 것이다. Rogers의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에 따르면,⁴¹⁾ 저 소득과 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모델을 통해서 보다는 그들과 연결된 사회적 망(network) 안에서 그들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인물을 통해서 정보화되어진다. 또한 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거나 행동을 시도하는 동기는 경제적 이익이나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므로 설득 능력이 뛰어난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메시지의 의사소통에서 변화 매개체(change agents)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금연이나 흡연중지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인구 집단에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예외없이 모든 공공장소 안에서의 금연지역 설정을 채택함으로써 흡연 습관의 불편함과 흡연을 금지하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또한 강조해야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결혼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또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들을 위해 결혼 붕괴의 심리적 불안정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스트레스 조절과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network)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개입의 시행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센터나 교회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위한 흡연 개입 정책은 우선적으로 문화동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 언어 능력을 갖고 Anglo 문화와 가치를 따르려는 여성들이 위험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전통적 문화 보다는 Anglo 문화에 더욱 가치를 둘 것이다. 그들의 전통적 문화는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구속하는 전통 규범 혹은 버릇을 깨뜨리고 중하층이나 하층 Anglo 여성들의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women power”나 “Anglicizenss(백인화)”을 즐기고 보여주려 한다.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Anglo와의 잦은 접촉을 하고 또한 이들로 부터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멕시코계 여성들을 위해 그들의 규범이나 버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다. 흡연에 관한 현재 미국의 규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예, 공공 장소에서의 깨끗한 실내 공기법, 근무 장소에서의 금연 지역 정책, 흡연가에 대한 높은 의료 수가율을 적용하는 보험정책) 바람직한 미국인이 되는 방식,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 흡연을 하도록 요구하는 또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익히는 면역 방법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입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여성의 금연과 같은 전통적 규범의 가치나 아름다움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문화동화된 여성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11년이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담배를 끊거나 피운 경험이 없는 문화동화가 된 인물을 등장시키므로써 이들의 흡연 행동에서의 변화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메세지는 구두나 서면 형태를 다 사용해도 될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화동화가 많이 된 사람에게 도달하기가 더 쉽고 흡연에 대한 현재의 규범 인식을 바꾸는데 좋을 것이다. 스페니쉬 대중매체 보다는 영어 대중매체 조직이 이 집단을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 멕시코계 남성들 중 교육과 문화동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술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마셨다. 사회적 음주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술 사용/남용을 예방하고, 다른 방식의 사회화 방법을 개발하고 술을 권유하는 압력에 저항하는데 초점을 둔 종합적인 학교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다. 술을 끊는 방법이나 다른 대체 음료수를 사용하는 방법 보다는 어떻게 술의 남용을 막거나 혹은 폭음을 하지 않는 방법에 관한 대중매체 캠페인이 이 집단을 위해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문화동화 수준이 높고 교육을 받은 나이가 젊은 여성들이 음주 예방을 위한 우선적인 대상자가 될 것이다. 여성 흡연 예방을 위한 개입과 마찬가지로 문화 동화가 된 여성들 사이에 음주 사용에 대한 규범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술을 시작하지 않도록 막고 또래 압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학교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영어를 사용한 대중매체 캠페인이 이 집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음료수 없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젊고 문화동화가 잘된 사

람들이 대마초 사용에 있어서 위험 집단이다. 대마초 예방정책을 위해 정책결정가나 계획자는 초중등학교 프로그램을 강력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종류의 여가방법(예, 운동 활동), 약물 사용에 저항하도록 하는 면역법, 자기관이나 학생들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전통 문화에 대한 자존심, 문제 해결방식, 약물 사용의 건강에 대한 효과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학교 프로그램의 실행이 어린 나이에 대마초를 경험하는 것으로 부터 막거나 습관적인 사용을 막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와 직장에서의 프로그램 정책 등은 성인들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을 등장시킨 영어 매체 캠페인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이 가진 규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대마초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마초 사용이 나중에 AIDS 위험을 높이는 비합법적인 약물 사용으로 연결되는 단계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흡연과 음주와 대마초 사용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독성 행동의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동시에 이 세가지 행동 예방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참 고 문 헌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ogress in Chronic Disease Presentation, Cigarette Smoking in the U. S., 1986.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36 (35) : 58-65, U. S. DHHS Pub. No. 87-8017, Washington, D. C., 1987.
2.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Liver Cirrhosis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U. S. Alcohol Epidemiologic Data Reference Manual. Vol. 2. Rockville, Md. : NIAAA, 1987.
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emature Mortality in the U.S., Public Health Issues in the Use of Years of Potential Life Lost,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35, U. S. DHHS Pub. No. 86-8017, Washington, D. C., 1987.
4. Jessor, R., & Jessor, S. L.,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Academic Press, New York, 1977.

5. U. S. Bureau of the Census, Persons of Spanish Origin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 P.-20, no. 39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K. C., 1985.
6. Report of the Secretary, Task Force on Black and Minority Health, Executive Summary, Vol. 1, U. S. DHHS, Washington, D. C., 1986.
7. Rogers, R. G., & Crank, J, Ethnic Differences in Smoking Patterns, Findings from NHIS, Public Health Reports, 103(4) : 387-393, 1988.
8. Caetano, R, Hispanic Drinking Practices in Northern California,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6 : 345-364, 1984.
9. Padilla, E. R., Padilla, A. M., Morales, A., & Olmedo, E. L., Inhalant, Marijuana, and Alcohol Abuse among Barrio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4(7) : 945-964, 1979.
10. Frank, J. D. Persuasion and Healing. New York, Schocken Books, 1983.
11. Jaffe, A. J., Cullen, R., & Boswell, T. D., The Changing Demography of Spanish American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12. Escobedo, L. G., & Remington, P. L., Birth Cohort Analysis of Prevalence of Cigarette Smoking among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1(1) : 66-69, 1989.
13. Caetano, R. and Mora, M.E.M, Acculturation and Drinking among People of Mexican descent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9(5) : 462-471, 1988.
14. Crowther, B, Patterns of Drug Use among Mexican Americans, Inter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7(4) : 637-647, 1972.
15. Bruno, J. E., & Doscher, L., Patterns of Drug Use among Mexican American Potential School Dropouts. Journal of Drug Education, 9(1) : 1-10, 1979.
16. Haffner, S., Rosenthal, M., Hazuda, H., & Stern, M., Cigarette smoking in Mexican Americans and Anglo Americans, The San Antonio Heart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111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Dallas, TX, Nov. 13-17, 1983.
17. Huzuda, H. P., Sterns, M. P., Gaskill, S. P., Haffner, S. M., & Gardner, L. I., Ethnic Differences in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oronary Heart Disease, The San Antonio Heart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7(6) : 717-734, 1983.
18. Wilkinson, W. V., The influence of Lifestyles on the Patterns and Practices of alcohol use among South Texas Mexican American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1 : 134-147, 1989.
19. Caetano, R, Acculturation, Drinking Patterns and Alcohol Problems among U. S. Hispanics (Working Paper No. F-198). Berkeley, Alcohol Research Group, 1985.
20. Holck, S. E., Warren, C. W., Smith, J. C., & Rochar, R. W., Alcohol consumption among Mexican American and Anglo women, Results of a survey along the U. S.-Mexican Borde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 : 149-154, 1984.
21. Padilla, A.M., Acculturation, AAAS selected Symposium 39. Boulder, Colo., Westview, 1979.
22. Response Analysis Corporation, Nonmedical Use of Psychoactive Substances, Princeton, New Jersey, 1976.
23. Frank B., Marel R., Schmeidler J., Lipton DS, An overview of substance use among New York State's upper income householders. Advances in Alcohol & Substance Abuse, 4(2) : 11-26, 1984.
24. Rogers, R. G., & Crank, J., Ethnic differences in Smoking Patterns, Findings from NHIS, Public Health Reports, 103(4) : 387-393, 1988.
25. Markides, K. S., coreil, J., & Ray, L.A., Smoking among Mexican Americans, A three-gener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7 : 708-711, 1987.
26. Caetano, R., Accultural and drinking Patterns among U.S. Hispanic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2 : 788-799, 1989.

27. Marin, g., Perez–Stable, E. J., & Marin, B. V., Cigarette Smoking Among San Francisco Hispanics, The role of Acculturation and Gende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9(2) : 196–199, 1989.
28. Burnam, M., Audrey, R. L., Hough, M. K., et al., Acculturation and Lifetime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s among Mexican Americans in Los Angel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 89–102, 1987.
29. Mintz, J., Boyd, G., Rose, J. E., et al., Alcohol Increases Cigarette Smoking, A Laboratory Demonstration, *Addictive Behaviors*, 10 : 203–207, 1985.
30. Milman, D., & Su, W., Patterns of Drug Usage among University Heavy use of Marijuana and Alcohol by Undergraduate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1 : 181–187, 1973.
31. Dyer, A., Stamler, J., Oglesby, P., et al., Alcohol Consumptio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Mortality in two Chicago Epidemiologic Studies, *Circulation*, 56 : 1067–1074, 1977.
32. Estrada, A., Rabow, J., & Watts, R. K., Alcohol Use Among Hispanic Adolescents, A Preliminary Repor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4(3) : 339–351, 1982.
33. Single, E., Kandel, D. B., & Faust, R., Patterns of Multiple Drug use in High Scho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5 : 344–357, 1974.
34.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Health, United States, U. S. DHHS Pub. no (PHS) 85–1232.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35. Cuellar, I., Harris, L. C., & Jasso, R., An Acculturation Scale for Mexican American Normal and Clinical Population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99–217, 1980.
36. Medina–Mora, M. E., & Camplillo–Serrano, Alcohol Control Policies in Mexico, In P. F. Miller & J. Nironberg(Eds.), *Prevention of Alcohol Abuse*, N. Y., Plenum Press, 1984.
37. Pierce, J. P., Fiore, M. C., Novotny, T. E., et al., Trends in Cigarette Smoking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differences are Increasing,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1(1) : 56–60, 1989.
38. Helmer, J., & Victorisz, T., Drug Use, the Labor Market, and Class Conflict, the Drug Abuse Council, Washington, D.C., 1974.
39. Carey, J. T., Marijuana Use among the New Bohemians, in D. E. Smith(ed.), *The New Social Drug*,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0.
40.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 3rd ed., MacMillan, New York, 1983.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and Cultural Variables and Smoking, Alcohol, Marijuana Use Behavior

Young Ran Ki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elements and smoking, alcohol, and marijuana use behaviors in order to plan public health policy or health promotion program of Mexican Americans. Demographic, socioeconomic status, and acculturation are variables which reflect mechanisms socialization influences these behavior patterns among this popula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valence of addictive behaviors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addictive behaviors related to variables of acculturation, age, gender, education, and income. And the interrelations among addictive behaviors are also examined. The analyses used data for Mexican Americans from the U.S. Hispanic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from July 1982 through December 1984 by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ANOVA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for this study. This study found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among addictive behaviors in their prevalence. Both males' and females' alcohol and marijuana use behavior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acculturation. Females' smoking behavior is positively related to acculturation while males' smoking is negatively related to it. Income and education are negatively related to males' smoking and positively related to males' alcohol behavior. However, males' marijuana behavior is not related to income. Females' smoking behaviors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income and education. Education and income are positively related to marijuana behavior among females. Age is related to all three addictive behaviors among both gender. Age is negatively related to both males' and females' marijuana use behavior. Inte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marijuana use behavior is not significant among males. However, interrelations between alcohol and marijuana use behavior and between alcohol and smoking are significant among both genders. Females' smoking and marijuana use behavior is also significantly related.